



스물아홉번째 이야기

기독학부모로의 부르심

[신앙에세이⑩-다음세대교육]

포항에 있는 한동글로벌학교에 고2, 초6 두 자녀를 보내며 포항생활을 시작한지 2년이 되어갑니다. 자녀 교육을 위해 지방에서도 서울로 보내야 할 판에 서울에서 포항으로 내려간다고 하니 말리셨던 분도 많았지만 실제로 와보니 의외로 저와 같이 두 집 살림을 마다하지 않고 와 계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한동글로벌학교를 간단히 소개하자면 온누리 교회 이재훈 목사님이 이사장으로 계시고 한동대학교 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교육부의 인가를 받은 학교로 한국의 교과과정과 미국의 교과과정을 함께 사용하고, 초1부터 12학년까지 전교생이 500여명 되는 작은 학교입니다. 많은 분들이 국제학교로 알고 있지만 제가 생각하는 한동글로벌학교의 정체성은 기독교학교입니다.

영어수업을 따라가기에 힘든 영어수준을 가진 막내가 작년에 5학년으로 편입했습니다. 처음 등교하던 날, 낯선 환경에 떨어져 고개도 못 들고 있는데, 선생님께서 아이를 안아주시며 '하나님께서 이곳으로 너를 부르셨기 때문에 조금도 주눅들 필요가 없어, 당당해도 괜찮아'라고 말씀해주셔서 마음이 진정되었다고 했습니다. 선생님의 그 말씀이 단순히 아이를 격려하기

위한 말씀만이 아니었다는 것을, 다양한 기질의 아이들에 대해 모두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신뢰하며 사랑으로 인내하며 기다려주시는 행동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이렇게 아이들은 각기 하나님께서 선하신 방법으로 특별한 계획 가운데 자신을 이끄셨음을 깨닫는 과정을 겪습니다. 그 안에서 아이들은 자기 안에 쌓인 세상의 기준과 자신의 욕심을 하나님이 주신 비전으로 바뀌어나가는 귀중한 체험을 하게 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면서 점점 단단해져 갑니다.



아이들의 성장과 더불어 부모에게는 하나님의 참교육이 시작됩니다. 나름 많이 순종하고 말씀으로 양육하노라 자부했던 마음속에, 숨겨진 기대와 욕망을 살살이 바라보게 하시고 모조리 내려놓게 하십니다. 이러한 내려놓는 과정은 정말 눈물없이 들을 수 없는 힘겨운 싸움입니다. 이 땅에서 기독학부모로 산다는 것은 자신과, 아이와, 가족과, 세상의 가치관과 모든 영역에서 힘겨운 싸움을 해야만 합니다.

저도 이 곳에 와서 아직 세상의 평판과 기준에 따른 성공을 '성공'이라 믿고 있는지 수없이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교육전문가는 아니지만 아이 세명을 모두 기독 대안학교에 보내면서까지 기독교교육

을 확신하게 된 이유는 세상의 평판과 기준에 맞춰진 교육을 통해서만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기 위한 아이의 은사와 재능을 발견하기 훨씬 어려울 것 같다는 마음과 기독교적인 성품교육과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우선적 가치로 무장하고 교육받은 아이들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믿었고 그렇게 되길 원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와중에도 성공스토리만을 쓰길 원하는 제 마음을 보게 하시고, 그 길이 성공이든지 실패든지 무관하게 그 모든 과정에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한동글로벌학교에서는 매주 수요일 오전 학부모 기도회가 있습니다. BEE수가 전달되는 오늘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며 학교에 기도로 밑거름을 쌓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크리스찬 학부모들에게 자녀들을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비전을 품은 인재로, 암울한 세대 가운데 진정한 대안이 되는 인재로 양육하라는 사명과, 기독교적 세계관과 신앙에 입각한 교육의 중요성을 증거하는 증인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얼마전, 일어나서는 안되는 비극이 우리 사회를 또 다시 절망과 무력감, 깊은 슬픔에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이 슬픔을 위로하고 사회를 회복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진리와 그리스도의 사랑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선한 영향력으로 사회를 이끌고 변화시키는 크리스찬 리더들이 많이 배출될 수 있도록 다음 세대를 세우는 기독교 교육에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저를 포함하여 자녀양육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시는 크리스찬 부모들 모두 응원하고 축복합니다.

[글 및 편집 : 이경주]

[글쓴이 이경주 집사]

2015년에 BEE에 인도하심을 받았고, 현재는 자녀양육을 위해 가게 된 포항에서 온라인으로 기도회와 세미나에 참석하고 있으며 'BEE오는 수요일' 편집팀으로 섬기고있다.



monotoon [모놀로그 in 바이블]

김수경 작가의 모노톤 일러스트와 함께 시간순으로 읽는 성경 인물들의 생생한 독백을 정주행하며 신약성경 차례대로 통독하고 묵상하는 시간!



출처 https://instagram.com/monotoon_kimsookyoung

BEE 소식

1. 2022년 “일상을 넘어 풋대를 향하여” 일상 속에서 말씀을 실천하며 각자에게 주신 사명을 가지고 풋대를 향하여 나아가는 BEE 가족을 축복합니다.
“풋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빌3:14)”
2. 11월 26일(토) 2022년도 BEE Korea 정기총회가 있습니다. 한 해 동안 BEE Korea를 통해 주신 은혜와 사역을 되돌아보며 감사하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3. BEE 토요 기도모임 예배를 함께 섬길 팀원 모집!
기도 테이블 식구, 순식구 중에서 BEE를 하신 분, BEE를 시작하고 싶으신 분, 토요기도 모임 참석자 중(예정 포함)에서 Singer, 인도자 모집합니다.